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8. 30.(수)

'24년 SOC 예산은 안전투자 확대,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증가합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중앙일보, 이데일리 등, 8.29) >

- ◆ 내년 총선 겨냥했나...정부, SOC 예산 4.6% 확대
- ◆ 천발 KTX·가덕도 신공항...긴축재정에도 SOC 예산은 확대
- ◆ 총선 의식했나...SOC·노인일자리 예산 늘린 윤 정부

<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입장>

□ '24년 SOC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.1조원, 4.6% 증가한 26.1조원 수준입니다.

- 내년 SOC 예산 26.1조원은 지난 정부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'21년 26.5조원, '22년 28.0조원보다도 적고,
- 내년 SOC 예산 증가율 4.6%는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 10.1% 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.

* ('18) 19.0조원 → ('19) 19.8조원 → ('20) 23.2조원 → ('21) 26.5조원 → ('22) 28.0조원

□ 내년 SOC 예산이 올해 보다 1.1조원 증가한 것은 SOC 안전투자 확대와 GTX·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에 기인합니다.

- 폭염·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SOC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·철도·하천 등 SOC 안전투자를 강화하고,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-B·C 적기개통, 가덕도신공항 건설* 등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.

* (GTX-B·C) +0.4조원(1,660→5,442억원), (가덕도신공항) +0.5조원(130→5,363억원)

< SOC 예산 안전투자 주요내용 >

- ① (도로 안전: 2.0→2.3조원)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·터널 보수(1,239→1,817억원), 지하차도 침수방지(108억원, 신규) 등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
- ② (철도 안전: 2.1→2.5조원) 열차탈선 방지를 위한 선로·전기설비를 집중개량(3,033→4,904억원)하고 재해복구비 신규 편성(266억원) 및 작업자 안전시설 확대(164→643억원)
- ② (하천 안전: 1.6→2.2조원)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·관리(10개소)하고 댐 신규 건설(10개소)과 저수지 준설(77개소) 대폭 확대

□ 오히려 내년 도로·철도 건설 예산 규모는 9.3조원으로 올해 9.5조원에 비해 △0.2조원 감소하므로 ‘총선용 SOC 예산 편성’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	책임자	과 장 박재형 (044-215-73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은숙 (gorangji@korea.kr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배성호 (044-201-3238)
		담당자	서기관 김지혜 (044-201-3240)

